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anuary 2025 Issue | Vol. 03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물가상승률, 올해 약 2%로 완화될 가능성 —page 1-2
- 경제학자: 아세안 중 필리핀, 미국 관세 인상 영향 가장 적어 —page 2-3
- 필리핀의 가스 발전 개발 확대 방향 —page 3-4
- BDO 분석가, 필리핀을 글로벌 우수국가로 묘사 —page 4-5
- 마르코스 동맹, SSS 기여금 인상 연기를 촉구 —page 5-7
- 정부 계약자를 위한 최종 지급 전에 최신 세금 납부 증명서 필요 —page 7

EVENT

- [Jan 30, 2025] 필코렉과 친구들 골프 토너먼트 —page 8-9

물가상승률, 올해 약 2%로 완화될 가능성

January 09, 2025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물가 압박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약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이 2024년의 3.2%보다 낮은 2025년 평균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BSP의 기준 전망치인 3.3%를 밑돌 것입니다.”라고 Nomura Global Markets Research의 애널리스트인 유벤 파라쿠엘레스와 나빌라 아마니는 논평에서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2.5%였던 11월보다 상승해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3.2%로 끌어올리며, 2024년에 대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 물가상승률이 평균 3.9%를 기록한 이후, 연간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4% 내에 들어온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BSP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평균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고려할 경우 3.4%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HSBC의 아세안 지역 경제학자인 아리스 D. 다카나이는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이유로 2025년 인플레이션이 평균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EGETABLES are on sale at a market in Tandang Sora, Quezon City, Jan. 2, 2025.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글로벌 유가 하락 위험이 지속되고 소매용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쌀 인플레이션은 11월의 5.1%와 전년 동기의 19.6%에서 크게 둔화된 0.8%를 기록했습니다.

쌀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지만, 정부가 7월에 쌀 수입 관세를 기존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한 이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세 체제는 2028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이달 쌀 인플레이션이 음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생산 격차가 여전히 음수 상태이며, 우리는 쌀 수입 관세 인하가 식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노무라는 밝혔습니다.

노무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측면 대책과 유가 가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무역이 재조정되면서 중국산 상품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효과도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하락세로 기울어져 있습니다.”라고 다카나이 씨는 전했습니다.

“미 연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중국 본토의 성장세가 이전보다 약화되면 글로벌 에너지, 최소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필리핀 씨티그룹의 경제학자인 날린 쏫초티탐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평균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BSP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녀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상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플레이션이 “정책 목표 범위 내에 잘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2]

물가상승률, 올해 약 2%로 완화될 가능성

[Cont. from page 1]

“우리는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전기 요금 인상 계획에 기인하며, 연말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잠재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유가로 일부 상쇄될 수 있습니다,”라고 초초티탐 씨는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BSP는 금리 완화 사이클을 계속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호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인해 BSP의 정책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 매파적인 미 연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BSP의 주요 정책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노무라는 밝혔습니다.

BSP는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해 2024년 동안 총 75bp를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는 연말에 5.75%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BSP 회의 전에 한 차례 더 CPI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3%를 훨씬 상회하는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한 BSP가 금리 인하를 멈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라고 노무라는 덧붙였습니다.

노무라는 BSP가 올해 첫 세 차례 회의에서 7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BSP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잘 고정되어 있고 외환(FX) 전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연준이나 지역 내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독립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폐소화는 3차례에 걸쳐 1달러당 P59라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11월에 두 번, 12월에 한 번 발생했습니다.

한편, 다카나이 씨는 3분기까지 25bp씩 최대 7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정책 금리 전망을 업데이트했으며, BSP가 연준의 움직임과 외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회의를 번갈아 열며 점진적인 금리 완화 사이클을 통해 3분기까지 정책 금리를 5%로 낮출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상방 서프라이즈가 정책 금리 전망을 완전히 탈선시킬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단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중앙은행이 “작은 단위의 단계적 접근”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책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BSP는 2월, 2분기, 3분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초초티탐 씨는 말했습니다.

BSP는 데이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필요성을 이유로 올해 통화위원회 회의를 기존 7회에서 6회로 줄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중간 수준에 근접하면 2026년에 추가로 50bp 인하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 정책 금리가 역사적 수준에 가까워지고 경제 성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초초티탐 씨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1/09/645542/inflation-could-ease-to-around-2-this-year/](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1/09/645542/inflation-could-ease-to-around-2-this-year/)

경제학자: 아세안 중 필리핀, 미국 관세 인상 영향 가장 적어

January 08,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HSBC Global Research ASEAN economist Aris Dacanay. (PNA file photo by Anna Leah Gonzales)

마닐라 –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중 필리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고율의 관세 영향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HSBC 글로벌 리서치의 경제학자가 수요일에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HSBC 글로벌 리서치 아세안 경제학자인 아리스 다카나이는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의 상그릴라 더 포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리핀은 “미국의 고율 관세 리스크로부터 매우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카나이 씨는 “우리의 무역 흑자 또는 미국의 필리핀과의 무역 적자는 미미합니다. 필리핀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점은... 글로벌 무역이 축소되거나 축소되지 않거나, 최소한 규모가 줄어드는 리스크입니다. 필리핀의 노출도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아세안 전체에서 우리의 상품 수출이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3]

경제학자: 아세안 중 필리핀, 미국 관세 인상 영향 가장 적어

[Cont. from page 2]

그러나 다카나이 씨는 필리핀은 서비스 수출로 유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비스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디지털화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게임은 인공지능이며, 그 분야에서 필리핀은 부각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서비스 수출의 성장 외에도, 다카나이 씨는 필리핀의 재정적 여유가 또한 견고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 다른 국가들의 세수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필리핀의 세수 대비 GDP 비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목표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카나이 씨는 또한 필리핀의 인프라 지출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는 올해 6.3%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2026년에는 6.7%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카나이 씨는 필리핀이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관세 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오를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Fed)도 금리를 3.75%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다카나이 씨는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인 BSP가 금리를 연준보다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BSP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과 외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를 번갈아 가며 인하하여 정책 금리를 5%로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SP가 연준과 함께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BSP가 2025년 2분기까지 5%의 정책 금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를 2025년 3분기로 미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관리하려면 BSP도 연준을 따르며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페소가 안정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카나이 씨는 필리핀 페소와 다른 아시아 통화들이 올해 절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페소가 59페소대에 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은 올해 2분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절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더 탄력적인 통화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필리핀 또는 적어도 페소 통화가 더 견고하게 만드는 세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카나이 씨는 그 조건으로 필리핀의 관세 리스크로부터의 상대적인 안전성, BSP의 아세안 내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더 많은 외환보유고, 그리고 필리핀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들었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1308>

필리핀의 가스 발전 개발 확대 방향

January 08, 2025 | ENERGY, INFRA AND ECONOMICS - Bienvenido Oplas Jr. | The Philippine Star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들 – 즉, GDP 규모가 상위 50위 안에 드는 국가들 –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GDP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6%, 중국과 인도 5.8%, 터키 5%, 필리핀 4.7%, 이집트 4.6%, 인도네시아 4.1%, 말레이시아 3.9%, 폴란드 3.7%.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이 천연가스를 적게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2023년 천연가스/전체 발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9.5%, 중국 3.1%, 인도 2.7%, 인도네시아 17.4%, 필리핀 14.4%, 터키 21.2%, 폴란드 9.8%. 이들은 대부분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이에 비해, 천연가스/전체 발전 비율이 높고 동일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낮은 국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국의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멕시코 57.7%와 1.4%, 아르헨티나 51.8%와 0.3%, 이탈리아 44.3%와 1.2%, 러시아 44.8%와 1.2%, 미국 43.1%와 2.5%, 네덜란드 37.5%와 2.2%, 영국 34.3%와 1.5%, 일본 31.7%와 0.6%.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적당한 성장을 보입니다. 이들 국가의 천연가스/전체 발전 비율과 평균 GDP 성장률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39.6%와 3%, 말레이시아 37%와 3.9%, 한국 27%와 2.6%. [Cont. page 4]



One thing I notice about these countries is that they are mostly small users of natural gas. Their gas/total generation ratio in 2023 were as follows: Vietnam, 9.5 percent; China, 3.1 percent; India, 2.7 percent; Indonesia, 17.4 percent; Philippines, 14.4 percent; Turkey, 21.2 percent and Poland, 9.8 percent. They are high coal users.

STAR/File

필리핀의 가스 발전 개발 확대 방향

[Cont. from page 3]

천연가스가 풍부한 중동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천연가스/전체 발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은 84.5%, 아랍에미리트는 72%, 사우디아라비아는 62.7%입니다.

따라서 천연가스가 빠른 성장을 이끄는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저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국가의 성장 속도에는 많은 요인이 있으며, 에너지 투입도 그 중 하나지만 주요한 기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은 2023년 기준으로 석탄/전체 발전 비율이 62%입니다. 2020년에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이 선언되면서 가스 발전소가 늘어났고, 최근에는 원자력 에너지를 발전 믹스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스 발전 하위 부문에서 두 가지 좋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3월에 체결된 삼 대 전력 회사인 산미겔 글로벌 파워(SMGP), 아보이티즈 파워(AP), 메랄코 파워 Gen Corp.(MGen)의 액화천연가스(LNG) 파트너십을 필리핀 경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합작으로 두 개의 LNG 발전소와 LNG 수입 및 재기화 터미널을 공동 소유하게 되며, 해당 시설은 모두 바탄가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발전소의 합산 용량은 약 2,000MW입니다.

두 번째는 MGen의 자회사인 싱가포르의 퍼시픽 라이트 파워(PLP)의 확장입니다. PLP는 2014년부터 830MW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MW의 급속 시작 LNG 피킹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2025년 2분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에너지 시장 당국(EMA)은 PLP에 2029년까지 600MW의 수소 준비형 복합 사이클 가스 터빈(CCGT)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개발은 필리핀에 좋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Gen이 대형 LNG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교훈과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SPPC와 EERI를 운영하는 지식과 함께 AP 및 SMGP와 파트너십을 통해 쌓은 경험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연평균 6%에서 6.5%의 GDP 성장을 지속하려면 2026년까지 매년 약 7,000에서 8,000 기가와트시(GWh)의 전력 생산 증가가 필요하며, 2028년 이후에는 매년 9,000에서 10,000 GWh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평균 증가율은 연간 5,000에서 6,000 GWh에 불과하며, 이는 2024년 중반까지 자주 발생하는 옐로우-레드 경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1,000MW의 LNG 발전소는 평균 용량 계수 85%를 가질 경우 연간 약 7,446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연간 1,000MW 이상의 대형 가스 발전소가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과 원자력 발전을 위한 법적 틀의 부재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대형 LNG 발전소를 유치할 수밖에 없으며, 중단 명령 이전에 승인된 석탄 프로젝트들은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케손 주의 1,200MW 아티모난 석탄 발전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1/09/2412785/toward-more-gas-power-development-phl>

BDO 분석가, 필리핀을 글로벌 우수국가로 묘사

January 08, 2025 | By Manila Standard Business | Manila Standard



Dante Tinga Jr., senior vice president and director of research at BDO Unibank's Investor Relations and Corporate Planning Group, shares his insights on the effect of global events on the Philippine economy during BDO's exclusive economic briefing for its Japanese clients.

필리핀 경제는 강력한 국내 소비와 유리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힘입어 글로벌 outperformer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은행 경제학자가 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BDO 유니뱅크 투자자 관계 그룹의 수석 부사장인 단테 텡가 주니어가 밝혔습니다.

텡가는 BDO의 일본 클라이언트를 위한 독점 경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80명 이상의 일본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텡가는 필리핀의 젊고 성장하는 인구와 강력한 소비자 지출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필리핀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의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는 경제 회복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25세 이하이며, 연간 인구 증가율은 1.6%로 국내 소비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텡가는 가계 소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했으며, 해외 노동 파견의 재개와 해외 송금의 꾸준한 흐름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필리핀 가정의 구매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소비 주도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의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 범위에 돌아오면서, 통화 완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Cont. page 5]

BDO 분석가, 필리핀을 글로벌 우수국가로 묘사*[Cont. from page 4]*

필리핀의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 범위로 돌아가면서 통화 완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수입세 인하와 같은 조치로 안정된 쌀 가격이 가격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리를 신중하게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 투자 환경과 소비자 신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팅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추진을 포함한 통화 완화 정책들이 현지 경제 상황과 일치하며, 이는 경제 회복을 더욱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민간 부문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신뢰를 높이며, 필리핀 경제가 팬데믹 이전의 성장 궤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필리핀은 다가오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재정 정책과 달러 강세 등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입품을 비싸게 만들고 폐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팅가는 필리핀은 서비스 수출에서 뛰어나고, 상당한 송금 유입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디지털화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력을 업그레이드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높은 금리로 인해 민간 부문 지출은 저조했지만, 물가가 이제 안정되고 금리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부문 투자 전망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강한 내수 소비, 탄탄한 가계 재정, 신중한 통화 정책 덕분에 가속화된 성장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필리핀의 경제 궤적을 지원하는 데 있어 국제 투자자들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BDO 일본 데스크는 현지 시장을 탐색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맞춤형 통찰력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544718/bdo-analyst-describes-ph-as-global-outperformer.html>

마르코스 동맹, SSS 기여금 인상 연기를 촉구

January 08, 2025 | By Llanesca T. Panti, GMA Integrated News

행정부 의원들이 사회보장제도(SSS) 기여금 인상 시행을 연기하자는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바기오 대표 마크 고와 하원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리잘 대표 피델 노그랄레스는 각각 하원 결의안 2157호와 성명을 통해 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사회보장법(공화국법 11199호)에 따라 SSS가 2년마다 기여금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고 의원은 전 SSS 회장 겸 CEO 롤란도 마카사엿의 자료에 따르면, SSS의 수익이 2023년 3538억 2000만 페소로 2022년 3061억 6000만 페소에서 1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여금 인상을 연기할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2025년 SSS 기여금 인상 시행을 연기하자는 큰 요구가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고 의원은 하원 고등 및 기술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월 2.5%에서 2.9%로 증가한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를 지적했습니다.

“SSS는 기여금 인상 시행을 연기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가와 서비스 비용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6]*



마르코스 동맹, SSS 기여금 인상 연기를 촉구

[Cont. from page 5]

행정부의 법률가들은 사회보장기금(SSS) 기여금 인상을 14%에서 15%로 올리는 시행을 연기하자는 요청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기오 시의 마크 고 의원과 하원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리잘 시의 피델 노그랄레스 의원은 각각 하원 결의안 2157과 성명을 통해 이를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2018년 사회보장법(Republic Act 11199)에 명시된 대로 SSS가 기여율을 매 2년마다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 의원은 SSS가 기여금 인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2023년에 SSS의 수익이 15.6% 증가하여 3,538억 2천만 페소로 2022년의 3,061억 6천만 페소에서 증가했다고 전임 SSS 사장 겸 CEO인 롤란도 마카사에트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2025년 SSS 기여금 인상 시행을 연기하자는 요청이 많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고 의원은 하원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말했습니다.

그는 2024년 12월의 물가 상승률이 11월의 2.5%에서 2.9%로 증가한 필리핀 통계청의 데이터를 지적했습니다.

“SSS는 저소득층이 계속해서 오르는 생활비와 서비스 요금에 숨 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금 인상을 올해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 의원이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2023년 사회보장기금 감사보고서(COA)에 따르면, 체납 고용주로부터의 기여금 징수에서 비효율성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징수액은 93,747억 페소로 책정된 징수액 중 4.89%에 해당하는 4,581억 페소에 불과했습니다.

COA는 420,627명의 고용주로부터 최소 891억 7천만 페소의 기여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A 보고서에서 드러난 SSS의 기여금 징수 비효율성 문제는 기여금 인상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 의원은 말했습니다.

노그랄레스 의원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SSS 기여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근로자들이 가계 수입 감소로 더 이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인상을 중단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인상은 근로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을 줄일 것입니다.” 노그랄레스 의원이 말했습니다.

SSS는 RA No.11199에 따라 이번 달부터 회원들의 월 기여금을 마지막으로 인상했습니다.

노그랄레스 의원은 이 법적 인상 대신에 대통령이 SSS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SS는 시스템의 병목 현상과 격차를 먼저 해결하여 징수 노력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SSS는 또한 기여금 인상이 연기될 경우 연금 기금의 수명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기가 SSS 기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올해 기여금 인상을 시행하는 대신, 우리 동료 필리핀 국민을 위한 배려와 공감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필리핀 근로자들이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노그랄레스 의원이 말했습니다.

하원 부소수당 대표이자 가브리엘라 당의 아를렌 브로사스 의원은 앞서 SSS 인상을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새해 선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수금

한편, 서원 가치알리안 상원의원은 SSS가 회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먼저 930억 페소의 미수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치알리안 의원은 다음 주에 결의안을 제출하거나 은행 및 금융기관 위원회에 SSS의 “경영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여금을 인상하여 510억 페소를 모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SSS에 미수금이 930억 페소가 있다면, 즉, 미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기여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가치알리안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SSS에 대해 의회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며, 경영진에게 930억 페소의 미수금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SS가 여기에 와서 왜 미수금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들이 징수하지 않았으며 왜 그것이 방지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돈을 내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내지 않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SSS의 투자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회원들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30억 페소의 미수금은 분명히 경영 문제의 신호이며, 이 미수금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7]

마르코스 동맹, SSS 기여금 인상 연기를 촉구

[Cont. from page 6]

"확실히, 930억 페소의 부채는 관리 문제의 신호이며 그 금액은 반드시 수금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관리 측면에 집중할 것입니다. 관리가 효율적인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들의 투자가 회원들에게 좋은 수익을 돌려주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투자가 혜택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여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SS는 예정된 기여금 인상을 옹호하며, 이는 국가 운영 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LDF,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topstories/nation/932249/marcos-allies-join-call-to-defer-sss-contribution-hike/story/>

정부 계약자를 위한 최종 지급 전에 최신 세금 납부 증명서 필요

January 08, 2025 | Arthur Fuentes, ABS-CBN News



마닐라 - 정부 계약자는 최종 지급을 받기 전에 업데이트된 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BIR)이 수요일에 밝혔다.

BIR의 로메오 루마귀 Jr. 국장은 정부 계약자는 이제 세금이 미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업데이트된 세금 납부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받아야 하며, 최신 소득 및 사업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마귀 국장은 계약자가 정부 계약의 최종 결제를 받을 수 있기 전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정부 계약의 최종 결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루마귀 국장은 말했다.

BIR 수장은 정부 계약자가 계약의 최종 지급을 받기 전에 세금 미납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BIR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부 계약자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루마귀 국장은 말했다.

BIR은 업데이트된 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 계약의 최종 결제가 보류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이 계약자의 미납 세금 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를 대신해 세금 유치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urce: <https://www.abs-cbn.com/news/business/2025/1/8/updated-tax-clearance-required-for-gov-t-contractors-1454>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PHILKOREC & FRIENDS GOLF TOURNAMENT

JANUARY 30, 2025 (THURSDAY)
WACK WACK GOLF & COUNTRY CLUB

REGISTRATION STARTS AT 7:00AM
SHOTGUN AT 8:30AM

REGISTER HERE:



PHILKOREC & FRIENDS GOLF TOURNAMENT

REGISTRATION

NON-WACK WACK MEMBER (PHP 10,999)

WACK WACK MEMBER (PHP 5,499)

COMPANION / NON PLAYER (PHP 3,000)

Mulligan (P500 Front, P500 Back). Caddy & Golf Cart not included.

Appropriate Golf Attire is required.

INCLUSIONS

BREAKFAST

BUFFET LUNCH

GREEN FEE

1 TEE SNACKS

RAFFLE TICKET

SOUVENIR (FROM SPONSO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